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중국 보험업계 상반기 자산운용 수익률 개선

-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회)에 따르면, 올해 상반기(1~6월) 중국 보험업계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작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.
-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약 1,100억 위안의 운용 수익을 거두어 6%를 상회하는 연환산 수익률을 기록함.
 - 올해 상반기 중국 보험업계 총 수입보험료는 5,98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6.6% 증가한 반면, 보험금지급금은 1,608억 위안으로 4.2%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됨.
 - 또한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은 연초대비 10.4% 증가한 총 3조 4천억 위안으로 그 중 채권이 50.2%(연초대비 7.7% 감소)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은행예금 31.0%(연초대비 4.5% 증가), 주식 9.8%(연초대비 1.9% 증가), 증권투자기금 6.8%(연초대비 1.4% 증가), 기타 2.2% 등의 순으로 나타남.
 - 상반기 보험업계의 예상이익은 약 26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98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, 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에 따른 손익을 기록한 손해보험회사가 1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개사가 늘어나는 등 보감회는 중국 보험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.
- 하반기에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에 힘입어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산운용 수익률 향상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.
- 중국 보험업계는 시장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한 올해 하반기에는 전체 운용 자산의 30%에 해당하는 약 1조 1천억 위안에 대해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.
 - 이와 함께 금융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맞물려 보험회사들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, 운용자금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보감회는 예상하고 있음.

(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· 인민일보 · 상해증권보, 7/20)